

5·18 진상조사위 장관급 위원장...9월 출범

조사 1~3과 정원 50명...활동기간 2년에 1년 연장 가능 헬기사격·발포 책임자·북한군 침투조작 등 의혹 조사

오는 9월 14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규모가 발표됐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8일 국방부·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사무처 산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 1~3과를 둘 수 있으며, 정원은 50명

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과 상임위원은 각각 차관급이며, 대외협력담당관·조사1~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2년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맡는 조사 1~3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 7가지 항목을 나눠서 규명한다. 조사과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

해 이뤄진 민간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헬기사격을 포함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등을 맡는다.

2과에서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와 국방부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을 비롯한 집단학살지·암매장지의 소재와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소재 등을 담당한다.

3과에서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그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 사무실에서 해야하며,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참고인·증거 또

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국가나 관련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암매장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장(改葬)할 수 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외교부는 외국에 있는 5·18 기록물의 반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도 사무실 제공, 5·18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의 요구에 불응한 사람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최대 3000만원 이하)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평제 연꽃 '탐스럽게 피었네' 8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전평제에서 연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 기준 이상 발견

질병본부 전국 경보 발령 12세 이하 예방접종 필수

광주시는 8일 "전국 질병매개 모기감시 결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6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전남에서는 7월 3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채집 개체 수가 962마리로 전체 모기의 64.7%를 차지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약 4.5mm의 소형 모기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반지와 긴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신발 상단이나 양말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모기를 유인하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캠핑이나 야외에서 잠을 잘 때도 텐트 안에 모기 기

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으므로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대부분이 40세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지역 거주자와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7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일본뇌염을 주로 일으키는 작은빨간 집모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년전 자취 감춘 토종텃새 양비둘기 화염사 일원서 발견



지난 2009년 이래 자취를 감춘 구례 화염사의 양비둘기(별종위기 야생생물 II급·사진)가 최근 다시 발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의 조사 결과 양비둘기는 현재 화염사에 10마리, 천은사에 2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양비둘기, 굴비둘기 등으로도 알려진 양비둘기는 1882년 미국 조류학자 루이스 조이가 부산에서 포획하며 우리나라 텃새로 등재됐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흔히 관찰됐으나, 서식지 파괴와 집비둘기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리산 화염사에서는 2007년 처음 발견됐다가 2009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번식·서식 환경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양비둘기의 생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조사단 등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찰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대설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달뜨기	01:53
해질	19:50	달짐	15:34

끝나지 않은 장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비	22/28	보성	비	20/24
목포	비	22/28	순천	비	22/25
여수	비	21/23	영광	비	21/28
나주	비	21/27	진도	비	22/27
완도	비	22/26	전주	비	21/26
구례	비	20/26	군산	비	20/25
강진	비	22/26	남원	비	20/27
해남	비	21/27	흑산도	비	20/25
장성	비	21/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1.0~2.5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동~남동	1.5~2.5	동~남동	0.5~1.5
	면바다(서)	남동~남	1.0~2.5	남동~남	1.0~2.0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	☁	☁	☁	☁	☁	☁
23/32	23/32	24/32	24/32	24/32	24/32	24/32

오늘 광주·전남 최고 30mm 장맛비...내일은 무더위

9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간 10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데 등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려져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 예상되며, 5~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특히 이날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

다봤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물러간 10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상되고, 이번 무더위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맛비로 주춤했던 더위가 10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만큼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매매후 널 세금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 일부 배상 책임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매도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세금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정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중철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지급하라 고 B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상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가 부가가치세 1415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